

(주)고운시티아이 정기섭 회장, 지스트에 발전기금 2천만 원 기탁

- 지역 과학인재 양성 및 연구발전 위해 쾌척



▲ 왼쪽부터 지스트 김기선 총장과 (주)고운시티아이 정기섭 회장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는 (주)고운시티아이 정기섭 회장으로 부터 2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받았다고 24일(월) 밝혔다.

(주)고운시티아이 정기섭 회장은 현재 지스트 발전재단 이사직과 더불어 GTMBA(기술경영아카데미) 제4대 총동문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기탁식은 1월 21일(금) 총장실에서 김기선 총장, 고정주 지스트 발전재단 이사장, 이용범 GTMBA 총동문회 차기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운시티아이는 토목, 건축, 주택건설, 전기, 소방, 조경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파트, 도로/항만, 터널 및 플랜트 등 전 분야에 걸쳐 진출해 있는 26년의 건설 노하우를 가진 건설업체이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고운 하이츠' 브랜드로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전국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고운시티아이는 최근 매년 10개 이상의 공사실적을 달성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실적으로는 영암 삼호 고운라피네 신축공사,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성남 장호원 도로공사 등이 있다.

정기섭 회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곳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며, “지스트가 광주·전남 지역의 미래를 선도하고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스트 김기선 총장은 “지스트 발전을 위해 늘 힘써주신 정기섭 회장님의 기부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쾌척해 주신 기금은 지역을 넘어 세계적으로 우수한 과학인재 양성과 산학협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